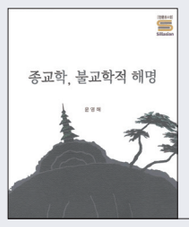
시대적 붓다상 통해 사회문제 해법 찾다



붓다전기의 변용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묶음
동국대 출판문화원 펴냄
2만원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
윤영해 지음
동국대 출판문화원 펴냄
4만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는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인도불교가 직시해야했던 고민과 중국불교가 당면했던 고민, 그리고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인식은 제각기 달랐다. 그렇기에 부처님 생애를 다룬 붓다전기(佛傳)는 불교의 전래에 따라 변용되어 왔다.

이러한 불교의 전파 경로에 따른 불전의 변용을 연구한 업적이 하나로 집대성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2023년 3월 발간한 〈붓다전기의 변용〉이 그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수행적 접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對)사회적 고민을 해왔다.

최근 들어 전통강원 교육방식에 더해 서양철학적 접근방식과 종교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조류가 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불전의 전래와 변용을 새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지난 3년간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佛傳)의 변용 양상'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하나의 주제로 3년간 논쟁한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석길암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서로의 전공영역에서 붓다전기에 대한 이해를 좁혀 나가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붓다상, 추구해야 할 인문적 붓다상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책은 이 시대에 맞는 붓다상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고 말했다.

청바지 입은 붓다?

〈붓다전기의 변용〉에서는 경·율·론 삼장과 삼장에 대한 주석서 그리고 각 불교전통에서 만들어진 불교전적들을 다양한 시각에 따라 보여준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붓다전기의 모습들은 그 시대와 지역의 불교사상 또는 불교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 총 8편의 수록 논문에서는 주로 불교 전파의 큰 두 갈래인 북전과 남전의 양상을 대조적으로 논한다.

북전과 남전의 두 전파 경로 상호비교로 '불전' 변화 살펴 활용 지점에서 시대 화두와 접점 모색, 해법 도출한 역작

정덕 스님, 법진 스님, 황순일 교수 등은 남방 상좌불교 및 동남아시아 불교전통에서 형상화된 붓다전기의 특유한 양상을 불교 내적배경과 외적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동남아시아화 과정까지 살핀다.

한지연, 석길암, 정광훈, 김호귀 교수 등은 남방 및 동남아시아 불교와 비견하여 붓다전기의 동아시아적 형상화 과정과 문화적 확산과정을 제시하여 지역적 상호비교를 한다.

이를 통해 불교전파 상에서의 붓다전기 이해양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새로운 붓다상을 제시한다. 동광 스님은 공감에 기반한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붓다상의 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까지 내놓는다.

실라시안(Sillasian) 인문총서 '첫발'

이번 〈붓다전기의 변용〉은 신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라는 공간 전역에서 불교가 겪은 역사적 경험을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실라시안 인문총서'의 1권이다.

석길암 원장은 "인문적으로 작동해오면서 소통·공감을 통해 사회를 바꾸었던 불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기에 '인문총서'라는 명칭을 사용해 총서의 제목을 '실라시안 인문총서'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붓다전기의 변용〉에 이어 윤영해 교수의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도 실라시안인문총서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여러 논문이 선별돼 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윤영해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정년퇴임과 함께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추구하는 불교와 연구와 사회와의 소통에 공감하며 후학들을 위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실라시안 인문총서로 펴냈다. 윤영해 교수는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에서 종교학에서 중시하는 종교체험의 문제를 불교의 선과 접목시키는 연구, 다종교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생태철학의 불교적 근거로 확장하고 사회를 향한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라시안 인문총서의 〈붓다전기의 변용〉과 〈종교학, 불교학적 해명〉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삶의 지혜, 네 글자로 만나다



불교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민족사 펴냄
1만3,800원

'문해력'. 최근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문해력'은 다양한 글 속에서 창의적 발상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 글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띈다. 이러한 중의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은 특히 한자가 혼용된 사자성어에서 발견된다. 네 글자 속에 담긴 사자성어는 은유적·간접적 화법으로 직접적 화법보다 주는 메시지가 깊다. 민족사 대표를 맡고 있는 윤창화 선생이 펴낸 〈불교사자성어〉는 단순한 '사자성어' 책이 아닌, 네 글자로 만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자(漢字)는 한 글자에도 뜻이 있고(癡, 어리석음), 두 글자면(知足, 만족할 줄 알다) 어느 정도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네 글자(4字)면 모든 것을 표현, 전달할 수 있다. 〈불교사자성어〉는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四字成語) 60여 개를 뽑아서 그 뜻과 의미, 그리고 메시지 등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서술했다.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이 책에 실린 사자성어 60개를 안다면, 불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근심, 걱정 등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60여 개 사자성어 속에는 불교 교리, 사상, 문화, 가르침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 윤창화 선생은 이번 책 발간을 6년전부터 준비했다. "독자들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는 저자는 불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혼탁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부족하지만 대안 혹은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고자 시도했다. 책을 통해 저자는 아울러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관과 삶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문해력' 중요성 높아진 시대 한문 속 중의·창의 표현 습득 법문 키워드·주제 활용 가능

이 책을 통해 스님들은 '오늘은 어떤 법문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법한 법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원증회고(怨憎會苦)', '몽중설몽', '소욕지족' 등 사자성어에 깃든 일화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네 글자로 만나는 삶의 지혜인 〈불교사자성어〉를 통해 삶의 고해(苦海)를 이겨내고 사자성어에서 마음이 흔들려 인생의 진로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저자 **윤창화 씨**는?

강원 평창 출신인 윤창화 선생은 13년간 출가 생활을 했다. 8년 동안 월정사 조실 탄허 스님을 시봉하며 학문의 세계와 만나게 됐다.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1978년 환속. 1980년 불교전문출판사인 민족사를 설립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1999년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창화'는 수계명. 논문으로 〈해방 후 역경의 성격과 의의〉,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경허선사의 지음자 한암〉, 〈성철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선불교〉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17. 적습성성(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積習成性)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지도론〉에는 "날마다 성질(화, 분노심)을 내서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면 나쁜 성품(惡性)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짜증, 화, 분노는 환경 탓, 성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쩌다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5. 색즉시공(色卽是空) '색(물질)은 공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사망 후 12시간이 지나면 눈에 띌 정도로 부패하기 시작하고, 노출될 경우 한 달이면 폭삭 썩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빨리 부패하는 곳이 바로 이목구비라고 한다.

그리고 이목구비는 육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오염수 통로(하수구)가 된다고 한다. 그 예쁜 눈과 입, 코, 귀가 고름 같은 것이 질질 흘러 내리는 하수구라고 보면 그만 소름이 끼친다. 자신도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허망해진다. 색즉시공이다.

37. 증사작반(蒸沙作飯) '모래로 밥을 만드는 사람'

증사작반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든다'는 뜻이다. 과연 모래로 밥을 만들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불가능하다. 증사작반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유한 말이다. 증사작반은 원효 대사(617~686)가 지은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사자성어이다. 이 책은 문장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책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갓 입산한 행자들을 가르치는 초급 교과서였다.

"비록 부지런히 수행한다고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실제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쌀로 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수행해도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